

북한 문화의 형성, 1945~1950

찰스 암스트롱(컬럼비아대학교 교수, 역사학)

I. 공산주의의 문화적 건설¹⁾

북한은 소비에트연방 외부에서, 공산주의 또는 소련식 ‘국가 사회주의’를 실행한 최초의 정부였다.²⁾ 몽골 인민공화국의 유일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 사회주의는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할 때까지 소비에트연방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다. 소비에트 체제가 그 발생

-
- 1) 필자는 이 논문의 초고에 대해 논평을 해 준 원광대 김재용 교수, 국사편찬위원회 김성보 박사, 경남대 류길재 교수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 2) 레인(Lane)은 국가 사회주의를 “국가 소유의 중앙통제경제의 특징을 지니고,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반하여 국가기구를 통해 대중을 동원하여 계급없는 사회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는 지배적인 공산당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David Lane, *The Rise and Fall of State Socialism* (Cambridge, U. K.: Polity Press, 1996). 필자는 ‘국가 사회주의’ 개념이 ‘공산주의’(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들 중 어느 것도 이것을 달성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나 정치적으로 치우친 ‘진체주의’, 또는 현재는 사멸해 버린 ‘현존 사회주의’(actually existing socialism) 등의 개념들보다 더 적절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지를 넘어서 나아갈 무렵, 그것은 중앙집권화된 정치와 산업화가 결합되어 ‘스탈린주의’로 서구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소련방의 수십 년간에 걸친 발전 이후, 스탈린주의는 직접적인 지배력을 갖든 안 갖든, 동부유럽, 중국, 한반도 등에 급속히 도입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 걸쳐 영향을 끼쳤다.³⁾ 따라서 다른 사회와 마찬가지로, 국가 사회주의로서 북한은 단지 하나의 정치적 체제라기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 언어, 문화, 그리고 일상의 생활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전체 체제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 체제였다. 공산주의는 새로운 문명화와 같은 것이었다.

소련에 대한 초기의 관찰자가 주목한 것처럼, 볼셰비즘은 ‘살아있는 실체’(living reality)의 측면에서, ‘일상 생활, 축제, 예술작품들’ 속에서 이해되어야만 했다. 다시 말해서, ‘전체로서의 하나의 문화’⁴⁾로 이해되어야만 했다. 이것은 면밀히 계획되고,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새로운 문화로서, 역사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서구 자본주의 문화를 대체하려 했다. 그것의 목적은 ‘재산관계, 사회구조, 경제조직, 정치적 실천, 그리고 언어 등의 분야에서 명백히’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것으로 ‘자본주의의 부정(否定)에 기반한 사회주의 문화’⁵⁾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른 강력한 문화—아마 모하메드 이후 몇 세기 동안 지속되었던 이슬람 문화가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처럼, 소비에트 사회주의도 강력한 확장과 자발적인 개종의 결합을 통하여 여러 지역과 사회로 확산되어 가면서 변형되고 적용되어 갔다. 북한에서 공산주의 계획의 지도자들과 지지자들은 한반도를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가인 소련과 연계시켜 한반도를 근대화시키고자,

3) Włodzimierz Brus, “Stalinism and the ‘People’s Democracies’”, Robert C. Tucker, ed., *Stalinism: Essays in Historical Interpretation* (New York: Norton, 1977); George Schopflin, “The Stalinist Experience in Eastern Europe”, *Survey*, vol.30, no.3(October, 1988).

4) René Fülöp-Müller, *The Mind and Face of Bolshevism: An Examination of Cultural Life in Soviet Russia* (New York: Harper & Row, 1965[1926]).

5) Stephen Kotkin, *Magnetic Mountain: Stalinism as a Civiliz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p.4.

사회주의를 향한 소련적 경로를 따르려고 하였다. 수입된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조선사회를 위로부터 아래로 변형시키고자 한 것은, 비록 공산주의적 변형의 속도, 범위, 취지 등이 매우 다른 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조선 초기에 시도되었던 신(新)유교적인 변형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⁶⁾ 북한 체제의 고유한 특성은 소련모델 아래에서부터 등장할 것이었지만, 소련점령기에도 1960년대 주체라는 지도적 원리를 형성한 기본요소들, 지극히 자주적이었던 반식민(反植民) 민족주의, 그리고 김일성에 대한 숭배의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으로 소련의 지배와 소련모델,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민족주의 사이의 긴장은 1945년과 1950년 사이의 북한 공식이데올로기와 예술에서 발견된다.

국가 사회주의의 모순 가운데 하나는, '사회주의 건설' 계획에 대중을 동원하기 위하여 정서적이고 예술적인 인센티브-강제와 폭력은 말할 것도 없이-에 의존하면서도, 그 자신의 체제를 지금까지 창안되었던 그 어떤 사회조직 가운데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체제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나치 독일을 제외한다면, 어떠한 사회도 스탈린의 소련과 그 모델에 기반한 국가들만큼 그들의 자원을 국가의 선전(propaganda)에 쏟아 붓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아마도 어떠한 국가 사회주의 체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덕적, 이데올로기적, 예술적인 자극을 북한만큼 강조하지는 않았다. 모든 공산주의 체제에서, 스타하노프 운동, '속도전', 그리고 스탈린에서 시작된 개인숭배 등은 모든 문제가 의지를 통한 승리의 쟁취로 해결될 수 있다는 일종의 신비적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⁷⁾ 국가 사회주의는 의심할 여지없이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사회질서가 가능하다는 계몽주의적 이상의 유산이었다.⁸⁾ 그것은 유럽 계몽주의의 논리적 결과였고, 유럽 계몽주의의 '궁극적

6) Martina Deuchler,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A Study of Society and Ideolog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7) Isaac Deutscher, "Marxism and Primitive Magic", in Tariq Ali, ed., *The Stalinist Legacy* (New York: Penguin, 1984).

이고, 가장 철저하고, 그리고 가장 자기 파괴적인 표현⁹⁾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또한 하나의 예술적 계획(an aesthetic project)이었고, 20세기 전반기를 통해, 동서를 막론하고 지식인과 예술인에게 강한 영향을 끼쳤다. 그것은 아마도 20세기의 가장 야심적인 예술적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 속에서 사회는 주도면밀하게 재구성될 수 있었다.¹⁰⁾

공산주의 계획의 ‘과학적’이고 ‘낭만적’인 측면은 정치와 예술을 무봉(無縫)의 전체로 결합시켰다. 국가 사회주의는 어느 곳에서 실행되었지 간에, 예술을 정치화시키고 정치를 예술화시켰다. 자본주의 소비자 사회가 ‘스펙터클의 사회’(society of spectacle)로 불리는 반면, ‘투명한’ 사회주의 사회¹¹⁾라는 마르크시즘적 견해와 대조적으로, 스펙터클은 모든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에 의해 주도된 것이었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었다. 정치적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스펙터클한 전시’(spectacular display)를 동원하는 것은 해방 이후 시기에 광범위하게 퍼졌다. 화려하게 채색된 포스터, 퍼레이드, 옥외 축전, 그리고 대중적 훈련(public drill) 등은 집합적 의지와 국가권력의 기념물이었다.¹²⁾

본 논문은 북한의 형성기에 정치와 예술이 결합되는 방식을 교육체계, 문학, 그리고 영화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다. 소련의 도움으로 세워진 새로운 체제는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일군(一群)의 지식인을 사회주의 문명의 새로운 거점을 창조하려는 계획에 끌어들었다. 궁극적으로 북한체제는 [소련에] 거슬리는 민족주의로 소련의 지배를 잠식해 들어갔으며, 북한은

8) Stephen Kotkin, *Magnetic Mountain*, pp.6~7.

9) Leszek Kolakowski, "Communism as a Cultural Formation", *Survey*, vol.29, no.2(Summer, 1985), p.147.

10) J. Hoberman, *The Red Atlantis: Communist Culture in the Absence of Communism*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98), p.31.

11) Guy Debord, *Society of the Spectacle* (Detroit: Black and Red, 1977).

12) Wilbur Schramm and John W. Riley, Jr., "Communication in the Sovietized State, as Demonstrated in Kore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16, no.6(December, 1951), p.764.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부여한 후에 국가의 목표를 강화하기 위해 지식인들을 엄격히 교육시켰다. 그 결과는 소련을 문화적 지도자와 모델로 인정하는 문화의 형성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토착문화를 부흥시키고 ‘근대화’시켜 일본 식민주의의 흔적을 제거하고, 새롭고 자주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조선의 문화를 창조하는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소련의 정책이 ‘형식상으로는 민족주의, 내용상으로는 사회주의’였다면, 북한의 문화형성은 몇몇 측면에서 그 반대로, 형식상으로는 사회주의, 내용상으로는 민족주의였다.

II. 소련의 점령과 문화의 생산

동부유럽에서처럼, 북한의 소련 점령당국은 대중을 동원하고 소련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문화적 기구들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미국의 문화 담당관들은 종종 그들의 적수인 소련이 지역 대중의 ‘정서’를 사로잡는 자원과 기술을 부러워했다.¹³⁾ 전후 동부유럽과는 달리, 북한에는 1945년 이전에 소련에서 오랜 기간을 보낸 주요한 문화적 인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에 대한 소련식의 접근은 식민지 기간 동안 좌파였던 한국의 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의 생각과 부합하는 점이 많았다. 소련에서처럼, 북한에서도 문화교육은 대규모로 수행된 경제조직화의 거울상이었다.¹⁴⁾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치체제가 세포, 혈관, 머리, 그리고 몸

13) Norman M. Naimark, *The Russians in Germany: A History of the Soviet Zone of Occupation, 1945-1949*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p.398.

14) Rudolf Bahro, *The Alternative in Eastern Europe* (London: Verso, 1981), p.39.

등의 유기체적 은유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문화체제는 전쟁과 동원의 은유-경제와 마찬가지로-뿐만 아니라, 기술자와 건축이라는 기계적 은유를 사용한다. 북한 잡지인 『문화건설』이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문화는 의식적으로 건설되는 물리적이며 물질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소련식의 접근]에 교감하는 북한의 지식인들은 소련군대를 환영했다. ‘임은(필명으로서, 나중에 소련으로 망명했다)에 따르면, 조기천, 전동혁, 그리고 임화 등을 포함한 저명한 좌파 문학가들이 1945년 9월 평양역 앞에 ‘조선신문사(Soviet Army Press Company)’를 세우고, 조선어 신문을 발행했는데, 그것은 소련-북한 문화의 생산 개시를 알리는 것이었다.¹⁵⁾ 조선신보는 소비에트 신보로 이름을 바꾸어, 미하일 강이라고 불리는 한인계 소련군 소좌의 책임 하에 있었다.¹⁶⁾ 10월에 세워진 소비에트 민정에서, 사법, 보건, 언론과 더불어 교육과 문화에 관한 점령정책은 소비에트 민정의 부사령관인 이그나체프(A. M. Ignatiev) 대령의 관할 하에 있었다. 소비에트 민정의 사령관인 로마네펬코(A. A. Romanenko) 소장은 통신, 재정, 수송, 농업, 그리고 산업을 감독했다.¹⁷⁾ 소비에트 민정 문화담당부의 최고위 한인은 김파(Kim P'a)로, 소련에서 온 한인계 2세였다.¹⁸⁾ 그러나 문화 생산이 러시아인,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온 ‘한인계 소련인’의 독점물은 아니었다. 북한의 작가, 예술가, 그리고 문화 일꾼들의 많은 부분은 원래 남쪽으로부터 왔으며, 정치적으로는 남조선 노동당과 박헌영 같은 ‘국내’ 공산주의자들에게 동조하고 있었다.¹⁹⁾ 조선노동당 선전부장 김창만 등 다른 이들은 연안 중국 공산주의혁명의 베테랑이었는데, 그들의 성향은 친소련 인물과 국제

15) Un Lim, *The Founding of a Dynasty in North Korea* (Tokyo: Jiyu-sha, 1982), p.143.

16) Andrei Rankov, 『소련의 원자료로 본 북한 현대 정치사』, 김광린 역 (서울: 오름, 1995), 313~314쪽.

17) Eric van Ree, *Socialism in One Zone: Stalin's Policy in Korea* (Oxford: Berg, 1989), p.103.

18) 김성환, 『해방 공간의 현실주의 문학 연구』 (서울: 일지사, 1991), 68쪽.

19) 1950년대 북한에서의 숙청은 ‘남조선’ 작가들의 대다수를 제거했다. 김재용, “북한의 남로당계 작가 숙청”, 『역사비평』, 제27호(1994).

주의자들보다 더욱 인민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이었다. 만주에서 반일(反日) 계렬리활동을 펼친 김일성의 동료들은 공산주의 '분파'들 가운데 가장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문화사업에 가장 연관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²⁰⁾

북한에서 소련의 문화사업은 다방면에 걸쳐 있었는데, 그 중에는 소비에트 정보국(Soviet Information Bureau), 소련 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해 배포했던 메즈두나로드나야(Mezhdunarodnaya), 통신사인 타스(TASS), 그리고 영화산업부의 분과인 소련영화산업수출공사(Sovexportfilm)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²¹⁾ 소련의 연극, 춤, 음악, 영화, 문학, 그리고 미술이 북한에서 널리 시행했다. 북한과 소련이 1949년 초에 문화교류에 관한 협정에 조인한 이후, 북한의 무용단, 문학, 그리고 미술 등도 소련에 소개되었다. 1945년과 1950년 사이에, 70여 개의 러시아·소련 문학작품이 수백 권의 기술서적, 역사서적, 과학서적 및 잡지와 더불어 조선어로 번역되었다.²²⁾ 러시아어가 북한의 주요 제2외국어가 되었다. 러시아어는 1947년에 고급중학에서, 1948년에는 초급중학에서 의무과정이 되었다. 영어는 1949년에 김일성대학 입학시험에서 러시아어로 대체되었다.²³⁾ 이론상으로 북한은 모든 '형제 사회주의' 국가들간에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문화교류의 한 부분이었지만, 실제로 북한에 문화적 영향을 끼친 사회주의 체제는 1949년 이후의 중국인데, 그것은 신화사(新華社)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또한 중국과 북한간에는 비공식적인 문화교류도 있었는데, 이것은 1945년 말 북한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연안' 공산주의자 그룹과 중국의 동북부와 북한을 상대적으로

20) Wada Haruki, *Kin Nichisei to Manshu konichi senso* (Tokyo: Heibonsha, 1992), pp.337~338.

21)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Assistant Chief of Staff, G-2 Record Group(RG) 332, box 57, "North Korea Today"(1947), p.18.

22) Andrei Rankov, 『소련의 원자료로 본 북한의 현대 정치사』, 314쪽.

23)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North Korea: A Case Study in the Techniques of Takeover*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1951]), p.111.

자유로이 넘나들었던 중국의 한인 소수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모택동과 다른 저명한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저작이 조선어로 번역되어 북한에서 읽혔다. 그리고 중국의 한인 소수민족의 문학 잡지인 『연변문화』도 북한에서 읽힐 수 있었다.²⁴⁾ 그러나 중국의 문화적 영향은 소련의 지배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것이었다.

소련과 중국간의 문화교류를 위한 주요 통로는 ‘소비에트 대외교류 총협회’(the Soviet All-Union Society for Cultural Relations with Foreign Countries; VOKS)의 지부인 ‘조-소 문화협회’로서, 북한에서 1945년 11월에 설립되었다. 그 협회의 대표지는 『조-소 문화』였다. ‘조-소 문화협회’는 1949년 말 130만 명의 회원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수치는 ‘조-소 문화협회’를 북한에서 가장 큰 사회단체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지부는 전국의 촌락과 반(班) 단위까지 퍼져 있었다.²⁵⁾ 자매단체가 모스크바에 세워졌으며, 1956년에 그 단체의 이름은 ‘조-소 친선협회’로 바뀌었다.²⁶⁾ 서울에 있던 미 공보원(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USIS)처럼, ‘조-소 문화협회’는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점령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선전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조-소 문화』는 소련 작품의 번역뿐만 아니라, 소련 사회주의와 문화를 찬양하는 글을 실었다. 그러나, 『조-소 문화』의 대부분은 북한의 정치적 사안에 관한 글과 북한 작가들에게 할당되어 있었고, 소련과 관련된 글은 부차적인 것으로 다루어졌다. 예를 들어, 초기 잡지 가운데 어떤 것은 북한의 과학자, 작가, 예술가들에 대해 언급한 김일성의 논문으로 시작되었고, 그 다음으로

24)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1941-, Records Seized by U. S. Military Forces in Korea”, Shipping Advice(SA) 2008, box 9, item 12, inaugural issue, 『연변문화』(1948). 실제로, 이 잡지는 북한과 중국에 관해 대등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북한 문화잡지처럼 읽힌다.

25)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North Korea*, pp.110~111.

26) 김성환, 『해방 공간의 현실주의 문학 연구』, 71쪽.

최창익의 “민주주의의 사적 발전”이란 논문이 실렸다.²⁷⁾ 이것은 전적으로 미국에 대한 내용만을 담았던 미 공보원의 『아메리카』와는 완전히 달랐다. 남한의 미군정이 마지못해 용인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에서의 소련 문화정책은 조선적인 문화표현을 장려하고 그것을 위한 공간을 넓혀 주는 것—그것이 소련의 점령정책에 비판적이지 않은 한—이었다.²⁸⁾

북한예술협회 잡지인 『문화전선』—명백히 소련 용어를 빌려 온 제목이다—의 창간호에서, 일본에서 교육받은 작가 안막은 조선의 작가들과 예술가들이 ‘(조선의) 5000년 민족예술과 문화를 재건’하고, ‘새로운 민족적 자각과 자신을 세우는 데 집중’할 것을 주장하였다. 안막은 10월 혁명과 히틀러에 대한 투쟁에서 나타난 소련 작가들과 예술가들의 모범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에 대항해 오랜 민족해방투쟁을 전개한’ 중국의 ‘민주주의 작가들과 예술가들’의 모범을 소개했다. 그는 중국의 경험이 당대 조선의 투쟁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암시했다.²⁹⁾ 그런데 마치 이것만으로는 소련 점령당국이 북한의 소련에 대한 충성을 의심하도록 만들기에는 불충분하다는 듯이, 한설야의 단편소설 『모자』가 발표되었다.

『모자』는 1945년 8월, 초기 소련 해방군과 함께 온 오직 ‘나라고만 알려진 우크라이나 출신의 적군 대장을 다루고 있다. 순박한 조선인들을 위협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허공을 향해 마구잡이로 총을 발사하는, 술에 취한 그 군인의 행패는 그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과 서부전선에서의 고통스런 경험, 그리고 조선의 풍습과 전통에 대한 그의 인식 부족 등으로 설명된다. 그런 와중에 그 군인은 ‘K’라는 이름의 조선인의 도움을 받는데, 이 ‘K’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그 군인을 극장에 데려가 전통적인 조선 음악과 무용

27) RG 242, SA 2005, box 1, item 18, 『조-소 문화』, 제2호(1946. 7), 8~75쪽.

28) 한국에서의 미-소간 ‘문화적 냉전’은 지금까지 별 다른 주목을 받지 않은 미개척 분야이다.

29) RG 242, SA 2008, box 10, item 124, 안막, “조선 문학과 예술의 기본 임무,” 『문화전선』, 창간호(1946. 7), 3쪽.

을 구경시켜 준다. 그 소련 군인은 조선문화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고 그의 조선인 동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게 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회주의 해방이라는 공동목표와 '인류의 태양인 스탈린 대원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공유하게 된다.³⁰⁾ 결국 그 소련 군인은 한 어린 조선 소년에게 그가 그의 아들을 위해 간직해 온 모자를 주는데, 그 모자는 젊은 조선인들이 실현할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의 상징이자 우호의 징표였다. 한설야에게는 불행하게도, 이러한 해피엔딩마저도 적군 관료에 대한 그의 노골적인 묘사를 상쇄시킬 수 없었고, 소련 민정당국은 재빨리 『문화전선』의 공격적인 내용이 회람되는 것을 금지시켰다.³¹⁾

III. 교육체계

북한체제는 그 자신을 협소한 계급적 의미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회를 반영하는 과학적 진리의 담지자로서 표현했다. 한편, 북한은 사회를 관통하는 이데올로기적 단일성을 창조하는 것과 대중에게 '진정한' 의식을 주입시키는 것에 매우 자각적(自覺的)이었다. 북한의 맥락에서 문화, 이론, 선전, 그리고 교육은 모두 하나의 단일한 계획으로 결합되어 있었다. 1949년 10월 창간된 『선전자』는 독립국가를 세우고,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내며, 인민대중의 문화수준을 고양시키는 작업에서 모든 북한의 '문화선전일꾼'—농민과 공장 노동자들에게 적용

30) 한설야는 김일성에 대해 '민족의 태양'이라는 표현을 최초로 쓴 사람인데, 아마 그것은 김일성과 더 큰 태양인 스탈린간의 종속적 관계—어떤 이는 위성국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를 암시했던 것 같다.

31) 이기봉, 『북의 문화와 예술인』 (서울: 사사연, 1986), 218쪽.

되는 용어-들이 수행해야 할 ‘심오한 임무’에 대해 언급했다. 부수상 홍명희는 『선전자』는 그 자체로 미 제국주의와 배신자 이승만 도당에 대한 ‘구국투쟁의 대오’이며, 모든 정부일꾼들과 선전일꾼들을 위한 ‘무기’라고 말했다.³²⁾

이데올로기적 생산이라는 주요한 도구는 국가에 의해서 지도되는 대중교육의 새로운 체계가 되었다. 교육자들과 문화일꾼들은 ‘선전자’로서, 그들의 임무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교육의 잔재를 제거하고 민주적 교육의 새로운 체계를 세우는 것”이었다.³³⁾ 광범위한 교육체계가 해방 이후 1년 내에 세워졌으며, 1948년 경제계획과 1949~51년 2개년 경제계획에서 더 확장되었다.³⁴⁾ 학교교육은 5년 과정의 의무적인 인민학교에서 시작되어 3년 과정의 초급중학과 3년 과정의 고급중학으로 이어졌다. 고급중학의 졸업자들은 1946년에 설립된 김일성대학을 포함하여 기술학교나 종합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더 높은 고등교육은 국가 장학금으로 지원되었다.³⁵⁾ 새로운 교육체계에서 두 가지 측면이 특히 대중적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첫째, 식민지 시대와 전(前)식민지 시대의 엘리트교육과는 대조적으로, 학교는 노동자와 농민의 자녀를 우대하면서 모든 계급성원에게 개방되었다. 둘째, 북한체제는 문맹을 극복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펼쳐, 중국문자 대신에 표음문자인 조선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으며, 촌락, 공장, 군대 등에서 읽기를 가르치는 강의를 개설했다.³⁶⁾ 북한체제는 1949년에 200만 명이 넘는 농민들을 문맹에서 탈출시켰다고 주장했다.³⁷⁾

북한은 교육의 확대에 관해 어지러운 정도의 통계를 공표하였다. 1949~51년의 첫 2개년 경제계획은 3,529개의 인민학교와 1,023개의 초급중학,

32) RG 242, SA 2006, box 15, item 23, inaugural issue, 『선전자』, 창간호(1949. 10), 6~7쪽.

33) RG 242, SA 2013, box 2, item 271.12, 『선전자 수책』(1949. 2), 13쪽.

34)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North Korea*, p.76.

35) RG 332, box 57, “North Korea Today”, p.18.

36) Wilbur Schramm and John W. Riley, Jr., “Communication in the Sovietized State”, p.761.

37)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North Korea*, p.76.

194개의 고급중학, 70개의 기술학교, 그리고 12개의 대학교의 설립을 요청했다.³⁸⁾ 북한체제의 목표는 “1950년 말까지 초급중학을 모든 농촌 마을에 세운다는 것”이었다.³⁹⁾ 1947년 함경북도 인민위원회는 그 지역에서 “교육과 문화활동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했는데, 해방 이후로 학교수의 151%, 학생수의 124%의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이다.⁴⁰⁾

정치적 교화는 당연히 교육체계가 중요하며 필수불가결한 부분이었다. 지방인민위원회는 교사들과 행정가들의 선별을 통해, 학교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리고 ‘민주주의청년동맹’이 학교에서 광범위하게 조직되었다. 민주주의청년동맹의 임무는 ‘반동적 종교 신봉자들’과 불온한 학생인자들에 대한 ‘사상투쟁’을 이끄는 것이었다.⁴¹⁾ 이러한 통제가 즉각적으로 구축된 것은 아니었다. 해방 후 처음 2년 동안은 평양, 신의주, 함흥 등지의 학교가 체제에 대한 저항의 장소였다.⁴²⁾

정규학교와 더불어, 성인을 위한 정치학교의 네트워크가 소련의 진주 이후 즉각 수립되었다. 초기에는 3주에서 1개월 정도의 강의가 제공되었으나, 1946년 3월, 강의는 3개월 과정으로 길어졌고, 어떤 지역에서는 6개월 과정에까지 달했다. 정치학교는 각 군과 다수의 면에 세워졌다. 예를 들어, 함경남도에서는 1946년 3월 무렵, 50~75개의 정치학교가 있었고, 평균적으로 100~150명의 학생을 두고 있었고, 지방인민위원회와 공산당의 감독을 받고 있었다. 정치학교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소련 정치, 조선 역사, 경제학, 그리고 정치 조직에 대한 간략한 학습을 진행시켰다.⁴³⁾ 그러한 학교로부터

38) 『계획경제』, 창간호(1949. 5), 28쪽.

39)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North Korea*, p.76.

40) RG 242, SA 2009, box 7, item 25,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활동보고”, 1947년 11월 3일, 13쪽.

41) United States Army, Far East Command, 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rvice(ATIS), box 10, item 68, North Korean Democratic Youth League, “Decisions of Central Standing Committee”, (January-March, 1949), p.14, 44.

42) United States Army, Far East Command, *G-2 Weekly Summary*, no.3(April, 1946), p.7.

43) ATIS, box 4, item 21, “Draft of Curricula for Provincial Party Schools of the North Korean

의 졸업은 교직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자산이었고, 교육자들에 대한 정치적 선별을 용이하게 했다.⁴⁴⁾ 정규적인 주간학교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야간학교도 세워졌다. 함경남도는 1946년 초, 13만 명의 학생을 가진 4,000개의 야간학교를 자랑했다.⁴⁵⁾

교육의 목적은 국가의 재건을 위해 기술적으로 유능한 노동력을 창출하는 것과 대중들에게 ‘혁명적 인식’을 주입시키는 것에 있었다. 새로운 사회를 창조함에 있어 교육의 중심성은 많은 측면에서 혁명 중국과 비슷한 것이었으나, 다른 영역에서는 소련이 북한의 교육에 대해 하나의 모델로서 단연 가장 중요한 외부적 영향을 끼쳤다. 1949년 무렵, 30여 명의 소련 고문단이 새로운 교사들의 양성을 위한 학교에 배치되었다.⁴⁶⁾ 1947~48년간 80여 명의 한인들이 소련으로부터 도착했는데, 그들 대부분은 교사로서 교육 받은 사람들이었다.⁴⁷⁾ 김일성대학의 많은 교수들도 소련에서 공부했거나 많은 기간을 그곳에서 보낸 ‘한인계 소련인’이었다. 그들 가운데 김승화는 김일성대학의 부총장이었고, 평양의 중앙당학교 교장이었다.⁴⁸⁾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러시아어를 도입한 것과 문학과 기술 영역에서 소련 서적들이 번역된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소련 기술고문단은 특히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북한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1946년, 북한과 소련은 매년 150명의 북한 학생을 3년부터 5년 동안 유학을 위해 소련으로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1949년 말까지, 소련에 유학한 학생은 600명이 넘었다.⁴⁹⁾ 이 학생들 중에는 사회과학뿐만

Workers' Party”(1949).

44) 예를 들어, RG 242, SA 2006, box 12, item 8, 평안북도 교사양성학교, “개인역사”(1949).

45) United States Army, *G-2 Weekly Summary*, p.6.

46) Key P. Yang and Chong-boh Chee, “North Korean Education System: 1945 to Present”, *China Quarterly*, no.14(1963), p.127.

47) Un Lim, *The Founding of a Dynasty in North Korea* (Tokyo: Jiyu-sha, 1982), p.143.

48) RG 242, SA 2011, box 7, item 35, “김일성대학 자유예술단과대 개인역사 수업”(1946).

49)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North Korea*, p.62.

아니라, 과학과 기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포함되었는데, 오직 가장 뛰어난 학생들과 엘리트의 자녀들만이 모스크바로 유학을 갈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최창익의 아들 최동국은 1949년에 모스크바에서 법을 공부하고 있었다.⁵⁰⁾

1949년, 북한 교육부장으로서는 역사가 백남운은 공식대표단을 이끌고 소련을 방문하여, 소련 사회주의와 교육제도를 열렬히 찬양하였다. 조선인은 ‘소련의 새로운 인간 유형’을 배워야 하며, ‘세계의 지도자’로서 소련의 과학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백남운은 말했다.⁵¹⁾ 레닌 이후, 테일러(Frederick Taylor)와 포드(Henry Ford)에 매료된 소련으로부터, 북한은 기계에 대한 숭배, 그리고 국가가 사회를 재조직할 수 있고 개인은 기계적 생산의 리듬과 요구에 적응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받아들였다. 소련은 과학적 지식의 근원이며, 북한사회변형의 목표이자 모델이 될 물질적이고 기술적인 건설의 영감(靈感)이었다.

IV. 문학

북한, 중국, 동부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소련에서 ‘주다노프주의(Zhdanovism)’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건설되었는데, 그때 소련의 문화 생산은 스탈린의 문화담당관인 안드레이 주다노프(Andrei Zhdanov)에 의해 지도되었다. 주다노프는 문화가 정치적 통제에 종속되어야 하며, 예술은

50) RG 242, SA 2005, box 10, item 3, “소련에 있는 아들이 최창익에게 보낸 편지”.

51) RG 242, SA 2005m, box 2, item 91, 백남운, 『소련 인상』 (평양: 조선력사편찬위원회, 1950), 3~4쪽.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순수예술’(High art)－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은 대중의 교화와 이데올로기적 행동주의의 광범위한 프로그램 가운데 작은 부분이다.⁵²⁾ 북한에서 매우 현학적이고 정치적인 문학작품들이 노동자, 농민, 군인, 그리고 다른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보급되었다.⁵³⁾ 이 모든 것들은 국가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독점되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처음 몇 년 동안, 더 자각적인 ‘예술적’ 문학과 작가들은 정치적 통제에 즉각 종속되지는 않았으며, 적어도 체제에 대한 간접적인 방식의 비판이 한국전쟁 시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식민지 시대의 주요 작가들 대부분이 숙청되었고,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김일성의 인성과 행동을 찬양하고 민족적 주제를 강조하는 ‘주체문학’이 정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⁵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지식인은 한편으로는 필요한 존재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협스러운 존재였다. 정치적 리더십은 권위의 상당 부분을 진리의 독점으로부터 이끌어 내었다. 특히 미래에 달성할 공산주의를 위해 현재 어떤 행동과 희생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해로부터 권위를 이끌어 내는 관계로 정치적 리더십은 지식인들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한 요구는 교육자, 선전자, 그리고 다른 지식인들에 의해 해석되고 다듬어져야 했다. 이러한 문화 생산자들은 인류학자 베르데리(Katherine Verdery)가 체제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정당화의 공간’(space of legitimation)이라고 명명한 영역을 차지했다.⁵⁵⁾ 그러나 지식인들은 또한 위협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지식에 보다 접근하면 결과적으로 동부

52) Katherine Verdery, *National Ideology Under Socialism: Identity and Cultural Politics in Ceausescu's Roman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p.88.

53) 예를 들어, RG 242, SA 2010, box 3, item 5, 『군정 문화사업 참고자료』(평양: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1950. 3)를 보라.

54) 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4), 14~17쪽.

55) Katherine Verdery, *National Ideology Under Socialism*, p.17.

유럽에서 발생한 것처럼, 정치적 권위에 물음을 던지고 비판을 가하는 데까지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몇몇 경우에 하나의 집단으로서 지식인은 [중국의 문화혁명에서처럼] 공격받을 수도 있고, [폴포트의 캄보디아에서처럼] 제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상적으로 보자면, 지식인은 체제의 요구에 종속되고 사회의 생산적 인자들로 흡수될 것이다. 북한에서 지식인의 역할은 조선노동당의 문장(紋章)으로 상징되었는데, 그것은 소련 국기의 망치와 낫에 학자의 붓을 더한 것이었다. 사회주의 국가들 가운데 독특하게도 북한의 지식인들은 노동자, 농민과 더불어 지도적인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었다.

식민지 시대에 활동하던 좌파 예술인과 작가들 가운데 다수가 해방 이후 북한체제에 결합하는 것을 선택했다. 더욱 더 많은 지식인들이 남쪽보다는 북쪽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였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공산당과 공산당에 관련된 지식인들에 대한 미군정의 탄압이 증대됨에 따라 1940년대 후반까지 계속 증가하였다. 한 추정에 따르면, 100여 명의 작가들 또는 남한 작가들 중 대략 3분의 1이 1950년대 초반 “북으로 갔다.” 그 가운데에는 1948년에 북한 문화담당 부수상이 된 홍명희도 포함되어 있었다.⁵⁶⁾

좌파 문학활동의 중심으로서 평양은 곧 서울을 대체했다. 1945년 9월, 소비에트 지역에 거주하던 작가들과 예술가들은 ‘평양예술문화협회’를 조직하였는데, 그 성원들의 정치적 견해는 좌에서 우까지 다양했으며, 일반적으로 보수적 민족주의 지도자인 조만식을 지지하고 있었다.⁵⁷⁾ 지방 공산당은 경쟁적으로 ‘평남지역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을 형성하여, 문학적 활동뿐만 아니라, 대중문화—가요 경연, 소련 영화 상영 등—도 촉진시켰다.⁵⁸⁾ 그

56) Marshall Pihl, “Contemporary Literature in a Divided Land”, in Donald N. Clark, ed., *Korea Briefing*, 1993 (Boulder: Westview Press, 1993), p.84. 또한 권용민 편, 『월북 문인 연구』 (서울: 문학사상사, 1989)를 보라.

57) 현수, 『적지 6년하의 북한 문단』 (서울, 1952), 1~5쪽. 성원들 중에는 오영진, 황순원, 최명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러나 소련과 연계된 한인들이 대중문화 영역을 지배한 반면, 문학은 대개 ‘국내’ 공산주의자들과 중국의 연안으로부터 돌아온 이들의 영역이었다. 후자에는 소설가 김사랑, 김창만이 포함되었고, 전자에는 이기영, 한설야가 포함되었다. 원래 북쪽 출신이기는 하지만, 이기영과 한설야는 ‘조선문학건설본부’와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이 ‘조선문학가동맹’으로 합병한 이후,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로 서울의 작가들과 절연했다.⁵⁹⁾ 나중에 김일성 ‘개인숭배’의 주요 인물이 되었던 한설야는 194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그의 몰락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예술과 문학을 지배하게 되었다.

1946년 3월, 북쪽의 작가들과 예술인들은 ‘북조선문화예술총동맹’을 결성하여, ‘건국을 위해 대중을 동원’할 예술을 촉진시켰다. 예술가들의 가장 긴급한 임무는 부르주아적, 봉건적, 식민지적 사상을 제거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물질적 기반을 창조하는 데 동참하는 것이라고 ‘총동맹’은 주장했다. 스탈린을 인용하면서, ‘총동맹’의 20개 강령은 계급의식과 민족주의를 결합—‘사회주의적 민족문화’—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창조를 요청했다.⁶⁰⁾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은 모두 사회주의적 건국이라는 국면에서 결합되어야 하고, ‘총동맹’의 지부는 모든 지역에서 건립되어야만 했다.⁶¹⁾

북에서의 예술적 자유의 한계는 1946년 12월 ‘옹향 사건’으로 명백해졌다. ‘원산문학동맹’의 서정시집 『옹향』의 발간은 ‘북조선문화예술총동맹’의 강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는데, ‘총동맹’의 지도자들은 『옹향』의 작가들이 그들의 작품 속에서 비정치적 리얼리즘과 진보적 민주주의 사상의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⁶²⁾ 1947년 1월, ‘총동맹’은 “시선집 옹향에 관한

58) 위의 책, 8쪽.

59) 임진영, “해방 직후 민주건설기의 북한문학”, 김남식 외 저, 『해방전후사의 인식』, 5권: 북한편 (서울: 한길사, 1989), 466쪽.

60) 유재천, “사회-문화-도구화의 문제점”, 이상우 외, 『북한 4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성과 변천과정』, (서울: 율문문화사, 1988), 236쪽.

61) 위의 글, 234쪽.

62) 김재용, “북한의 남로당계 작가 숙청”, 223쪽.

결정”을 공표하여, 그 작가들을 격렬히 비난하고 그들 모두 자아비판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때부터 북한에서는 더 이상 ‘순수문학’이 존재하지 않았다.

1947년 초, 조선노동당이 예술 생산을 검열하고 감독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취함에 따라, 문학과 예술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947년 3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북한의 민주주의적 민족문화의 수립’을 공표하여, 문학과 예술은 사회주의 내의 인민을 교육시키고 민족과 인민에 봉사하여야 함을 밝혔다.⁶³⁾ 사회주의 사회를 위한 기반은 1946년 봄과 여름의 토지개혁, 노동개혁, 그리고 여러 민주적 개혁과 더불어 공고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의 의식은 객관적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변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문화혁명’, ‘건국 사상 총동원 운동’이 차후의 긴급한 과제였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문학이 당의 정책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⁶⁴⁾

예술을 정치화시키려는 압력은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1949년 말, 김일성은 작가와 예술인들이 ‘단지 오락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경박한’ 행동을 하며, 혁명적 정신이 부족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인민을 교육시키고 공화국을 보위할 전사가 될 것, 그리고 노동 인민의 ‘영웅적 투쟁’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묘사할 것을 요구하였다.⁶⁵⁾ 강도 높은 애국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그 시대의 명령이었고, 북한의 역사를 통해 줄곧 그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한국전쟁의 고조기에, 연안에서 귀환한 김창만에 의해, 아마도 1942년 모택동이 연안에서 한 “예술과 문학에 관한 연설”을 모델로 해 작성된 연설문에

63) Yong-min Kwon, “Literature and Art in North Korea: Theory and Policy”, *Korea Journal*, vol.31, no.6(Summer, 1991), p.59.

64) 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21쪽.

65) Il Sung Kim, “Some Tasks Before Writers and Artists at the Present Time”, *Works*, vol.5 (Pyongyang: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80), p.283.

서, 같은 주제들을 계속 반복하였다.⁶⁶⁾

김재용은 1947년 이후 북한의 문학에 대한 접근을 '혁명적 낭만주의'라고 규정했다.⁶⁷⁾ 필자는 여기에 1960년대까지 지배적이지는 않았지만, 1940년대 말부터 존재해 온 북한 문학의 혁명적 민족주의라는 중요한 요소를 또한 덧붙일 것이다.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와 소련에 대한 경의가 1950년대 말까지 북한 문학의 주제로 존재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소련 군인, 기술자, 의사, 간호사 등이 한국인들을 아버지나 심지어는 어머니같이 돌보아 준다는 소위 '친선문학'(friendship story)은 1960년대 초까지 북한 소설의 주요한 장르로 존재했다.⁶⁸⁾ 그러나 비록 김일성 숭배가 1960년대 말에서야 주제문학에 구체화되었지만, 한국전쟁 이전에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스탈린 숭배는 낭만적 민족주의, 김일성 숭배와 나란히 존재했다. 이러한 현상은 영화를 포함하여 북한의 다른 예술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V. 영화

불세비키 혁명 이후로 영화는 국가 선전의 가장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가 되어 왔다. 레닌과 스탈린으로부터 무솔리니, 히틀러에 이르는 지도자들은 영화의 정치적 잠재력을 찬양하고 사용했다. 영상이 갖고 있는 정서적 힘과 대중적 호소, 문맹자에게까지 이르는 영향력, 그리고 개별 예술가

66) Il Sung Kim, "Talk With Writers and Artists, June 31, 1951," *Selected Works*, vol.1 (Pyongyang: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71), pp.305~312.

67) 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21쪽.

68) Brian Myers, "Mother Russia: Soviet Characters in North Korean Fiction", *Korean Studies*, no.16(1992).

들이 부담하기는 쉽지 않은 비용 등의 이유로 영화는 정치적 교육과 대중 교화의 수단으로 문학보다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레닌은 “우리에게 영화는 모든 예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⁶⁹⁾라고 했고, 스탈린은 이후에 이러한 점을 더욱 증폭시켜, “영화는 대중 선동의 가장 위대한 수단이다. 임무는 그것을 우리의 수중에 넣는 일이다”라고 했다.⁷⁰⁾ 소련 영화는 1930년대 중반에 국가의 통제 아래에 두어졌으며, 1930년대 말부터 1953년 그의 사망 때까지 스탈린은 개인적으로 모든 소련 영화의 생산을 감독하였다.⁷¹⁾ 나치 독일의 괴헬스와 1970년대와 1980년대 북한의 김정일처럼, 스탈린은 국영 영화산업의 ‘제작자’(executive producer)였다.

소련은 재빨리 북한이 영화산업을 발전시키도록 도왔다. 현수에 따르면, ‘인민 영화 사회’는 소련 영화를 상영하기 위하여 1945년 12월에 설립되었다. 나중에 월남한 황가병에 의해 공식적으로 지도되었지만, ‘영화 사회’는 실제로는 박종환에 의해 운영되었다. ‘영화 사회’는 ‘조-소 문화 협회’에 긴밀히 연계되어 있었다. 1946년 12월, 그것은 주인공의 감독 아래, ‘북조선 연극영화위원회’로 개명되었다.⁷²⁾ 북한 잡지인 『영화예술』에 따르면, ‘국립 영화 촬영소’—이 또한 주인공의 감독 아래에 있었다—는 김일성 수상의 지원과 소련의 도움으로 1947년 2월 설립되어 북한이 제작한 영화를 생산하기 시작했다.⁷³⁾ 달리 말하면, 북한은 1947년 초, 문학의 생산에 대한 통제를 확고히 하기 시작하고, 동시에 영화의 생산에 대해서도 감독을 진행시키기 시작했다. 미군 방첩대에 따르면, 1948년 말, 소련은 상영되는 모든

69) Geoffrey Nowell Smith, ed., *The Oxford History of World Cinem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334.

70) Richard Taylor, *Film Propaganda: Soviet Russia and Nazi Germany* (London: I. B. Tauris, 1998), p.49.

71) Peter Kenez, “Soviet Film under Stalin”, in Smith, *The Oxford History of World Cinema*, pp.392~393.

72) 현수, 『적치 6년하의 북한 문단』, 19쪽.

73) RG 242, SA 2008, box 9, item 2, 김우성, “조국의 통일 독립과 영화예술인의 임무”, 『영화예술』, 제2호(1949. 2), 9쪽.

영화의 60%가 소련 영화여야 한다고 요구⁷⁴⁾했으나, 1949년 무렵, 북한에서는 영화산업이 싹트기 시작했고 새로운 북한 영화가 소련, 중국, 동부유럽의 영화들과 더불어 상영되었다.

『영화예술』 1949년호에서, 문화선전부 부부장인 김우성은 북한에서 영화의 정치적 중요성에 대해 장황하게 서술하였다.⁷⁵⁾ 영화의 본질에 관한 그의 서술 중 많은 부분이 영화에 대한 스탈린주의적 접근을 반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논문의 내용—“조국의 통일과 독립, 그리고 영화 예술가들의 임무”라는 제목으로 시작한다—은 무엇보다도 민족주의적 주제를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모든 영화는 암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정치적 내용을 가지며, 할리우드 영화들은 단지 미국 독점자본의 이해관계를 표현할 뿐이다. 미국 영화들은 또한 폭력과 범죄를 찬양하여, 우리의 감수성 예민한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게다가, 미국의 진보적인 영화제작자들은 할리우드에서 반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억압되는 반면, 소련에서 그러한 영화제작자들은 칭송되고 존경받아 레닌 상이나 스탈린 상을 받을 정도였다. 소련의 다른 예술처럼, 영화는 창조적 성취의 정점이었고, 소련 영화는 소련과 동부유럽의 ‘인민민주주의’를 통해 영화예술의 수준을 높이고 있었다.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그리고 군국주의 일본은 모두 영화를 국가의 억압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조선에서 영화의 임무는 국가로부터 영화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련 영화를 모델로 하는 ‘혁명적 보위’ 아래에서 영화를 적극적인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다. 1945년 8월 해방 이후, 남한의 ‘민족 반란자’와 ‘친일파’는 직접적으로 서울에서 일본의 식민지적 국가 영화산업을 그대로 취했다. 반대로 북한에서는 일본의 영향과 모델들이 거부되었고, 영화는 ‘우리 민족의 영웅적 지도자 김일성 수상의

74)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ume two: The Roaring of the Catarac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883.

75) 김우성, “조국의 통일 독립과 영화예술인들의 임무”, 5~12쪽.

보위 아래에서' 국가 산업이 되었다.⁷⁶⁾ 그러나 영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중에게 애국적 열정을 불어넣는 것이었다. 소련의 형식은 민족주의 정신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⁷⁷⁾

1947~48년에 북한은 새로운 체제의 성취를 찬양하고 남한의 '꼭두각시'와 그들의 미국인 조종자들을 비난하는 일련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생산하였다. 「영원한 친선」이라는 영화는 소련을 찬양하였지만, 대부분은 북한의 정치체제와 경제의 건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었다. 그 외에 「인민위원회」, 「민주 건국」, 「빛나는 승리」, 그리고 「수풍뎀」 등이 있었다.⁷⁸⁾ 1948년 북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설립 이후 곧 수많은 팡파르와 칭송 속에, 북한은 첫 장편영화 「내고향」을 만들었다.

소련의 영화가 전폭적인 찬양의 대상이었던 소련 점령시기에 북한에서 만들어진 영화는 소련 영화의 모방이기 때문에, 계급투쟁에 초점을 맞추고 일본 식민지배로부터 조선을 해방시킨 적군에 대한 끝없는 감사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고향」에서 소련은 거의 언급되지 않으며, 계급투쟁은 일본의 압제에 대한 민족적 투쟁보다 훨씬 덜 중요한 주제였다. 영화의 형식마저도 몽타주 기법과 킥컷 기법 같은 소련의 기술보다는 식민시대의 일본영화의 기법과 조선의 멜로드라마의 전통을 보다 많이 따른 것처럼 보인다. 혁명적 변화라는 메시지는 조선의 풍경, 농촌의 삶, 그리고 농민들, 특히 여성의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정신에 대한 정서적 환기에 비해 그리 인상적이지 않다. 「내고향」은 조선 농민의 순결함과 소박함에 대한 정서적인 감응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사회주의적 목가주의로서, 소련으로부터 채택한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병행하여 가는 것이다. 그러한 주제들은 1950년대와 1960년대 북한 문학에서 공

76) 위의 글, 9쪽.

77) 위의 글, 12쪽.

78) 『영화예술』, 제2호(1949. 2), 52~56쪽.

통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영화에서는 더욱 더 강조되었다.⁷⁹⁾ 「내고향」에서 해방과 혁명적 변화의 대상은 전체 조선민족이지 하나의 계급이 아니었고, 해방의 수행자는 김일성 장군에 의해 이끌어진 만주의 반일계렬라이지 소련의 적군이 아니었다. 이처럼 계급투쟁을 반식민 민족투쟁으로 용해시키는 것과 반일 저항의 화신으로서 지도자 김일성 개인 속에 반식민 투쟁을 구현하는 것은 20년 후인 1960년대 말과 그 이후 ‘주체영화’-북한의 ‘결작」 「피바다」와 같은-의 중심 주제의 등장상을 예고하는 것이다.⁸⁰⁾

「내고향」의 민족주의적 내용은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스크린을 가득 메우고 있다. 그것은 백두산을 파노라마로 보여 주는 것을 시작으로, 자연 그대로의 삼림과 봄의 들녘, 하늘을 보여 주는 장면으로 진행되어, 결국 제목에서 말하는 고향인 함경남도 한 촌락의 가옥과 거리를 비춘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배의 암흑기로 돌아간다. 그때 그 촌락의 사람들은 일본 지배자와 그들의 하수인인 최씨 성을 가진 지주와 그 가족들에 의해 탄압을 받는다. 주인공인 관필은 최 지주의 소작농의 아들이다. 그는 은밀히 한 민족주의 교사에게 교육을 받고, 감옥에 갔다가, 맨손으로 일본인 형사를 죽인 후 교사와 함께 탈출한다. 그 교사는 죽지만, 관필은 만주 접경지에서 한 무리의 반일계렬라를 우연히 만나는데, 그들은 관필을 받아들여 모반 전술을 훈련시킨다. 산 속에서 2년을 보낸 후에 관필은 조선으로 돌아와 도시 노동자들을 선동하지만, 그의 생각은 늘 그의 고향과 일본의 압제 아래에 고통받는 그의 친구들 그리고 그의 홀어머니에게 닿아 있다.

그러나 1945년 8월, 김일성 장군에 의해 조선이 해방(영화는 소련군으로

79) Brian Myers, *Han Sorya and North Korean Literature: The Failure of Socialist Realism in the DPRK*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80) Kyung Hyun Kim, "The Fractured Cinema of North Korea: The Discourse of the Nation in Sea of Blood", in Xiaobing Tang and Stephen Snyder, eds., *In Pursuit of Contemporary East Asian Culture* (Boulder: Westview Press, 1996). 「피바다」는 필자가 1997년 가을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평양 극장에서 다시 상영되고 있었다.

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은 것을 인정한다)된 이후에도, 관필은 그의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대신 평양으로 가서 새로운 체제에 동참하여 조선노동당의 간부가 되고 김일성을 만나기까지 한다(영화에서 김일성은 다큐멘터리 컷으로 잠시 등장한다). 결국 간부 복장을 말끔히 입은 관필은 정부 관리로서 그의 고향에 돌아간다. 그곳에서 그는 환영차 나온 수많은 촌락민의 영접을 받고 오랜 기간 고생해 온 그의 어머니와 그의 고향 애인인 옥단과 감동적으로 재회한다. 영화의 마지막은 김일성이 한국의 농민들에게 준 토지라는 '선물'을 칭송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옥단: 저, 김일성장군께서 토지를 우리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관필: 옳소 이제부터 토지는 영원히 농민의 것이 되었소⁸¹⁾

행복한 농민들의 얼굴, 꽃과 농작물로 가득한 벌판, 그리고 영원한 조선의 풍경을 보여주는 장면.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한 음악. 페이드 아웃.

VI. 결론

1950년 11월 미 공군은 북한으로부터 온 피난민과 남한에서 90일 동안의 공산주의 점령을 겪은 남한 사람들에 대한 심리조사를 의뢰했다. 그 조사에 따르면, 공산주의의 '정보독점'은 '적어도 90% 정도 효과적'이었다.⁸²⁾ 그

81) 『영화예술』, 「내고향」 특별기획(1949. 2), 42쪽.

82) Wilbur Schramm and John W. Riley, Jr., "Communication in the Sovietized State", p.765.

저자들은 공군의 조사에 기반하여 *The Reds Take a City* (Rutgers University Press, 1951)를 발간했다.

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일적인 정보통제에도 ‘틈새’가 있었다. 사람들은 은밀히 남한의 라디오 방송을 들었고, 외부로부터의 소문이 친구, 가족, 이웃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었으며, 활발한 저항은 없었으나 선전을 믿으라는 것에 암묵적으로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다. 물론 이데올로기적 통제 of 어떠한 체제도 완전할 수는 없으며, ‘전체주의’도 비판자들이나 공산주의체제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그렇게 전체적인 것은 아니었다. 동부유럽과 소련의 경험이 보여 주는 것처럼, 겉으로의 순응은 내부의 의심과 심지어는 ‘일상적인 저항 활동’마저도 은폐할 수 있었다. 국가의 찬란한 선전과 소비에트 체제 속 실제의 음울한 일상생활 사이에 벌어져만 가는 간극은 공산주의국가들이 붕괴되기 오래 전부터 광범위한 냉소를 불러 일으켰다. 미국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사회, 경제, 정치, 그리고 문화 방면에서 5년간의 고도로 압축된 혁명적 경험을 겪은 후, 북한체제에 대한 열망은 개혁의 최대 수혜자였던 농민들 사이에서 가장 급격히 하강해 갔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공산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는 약화되어 갔지만, 여전히 지지는 실질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지역에서나 인민군에 의해 점령된 남한지역에서나 혁명에 대한 최고의 지지는 지식인과 학생들 사이에서 나왔다. 일찍이 조지 오웰은, 가톨릭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에서도, “오직 교육받은 사람들만이 가장 교조적이다”라고 말했다.⁸³⁾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바로 교육받은 사람들이었으며, 북한체제의 목적은 교육받은 사람들을 창출하여 더 많은 신봉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북한에서의 문화 생산은 소련을 맹목적으로 모방한 것 이상이었다. 북한 대중문화와 선전에서 보여진 민족주의 메시지와 민족해방과 독립에 대한 강조는 당시의 어떠한 소련의 ‘위성국’들보다도 가장 현저했다. 문화영역에 관계된 사람들 대다수가 소련-북한간 ‘우호’와 자율적인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 사이에 모순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다. 소련의 영향과 북한의 민족

83) Stephen Kotkin, *Magnetic Mountain*, p.508.

주의가 반드시 양립이 가능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 외부 관찰자들이 민속 무용, 음악, 문학, 그리고 극 부문을 부흥시킨 북한의 '문화 르네상스'에 대해서 언급했다.⁸⁴⁾ 내선일체라는 식민지적 허구에 오랫동안 억압받아 온 조선문화의 고유성은 폭발적으로 부흥했다. 소련 당국은 이러한 부흥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장려하기까지 했다. 이와 같은 것은 남한 미 점령당국에게는 또 다시 우려의 근원이면서 질투 어린 동경의 근원이기도 하였다. 1947년 미군 방첩대의 기밀보고서에 따르면,

소련 점령군의 문화정책은 조선의 토착문화를 특별히 강조함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호감을 불러일으켰다. 소련의 소수민족과 함께 한 풍부한 경험에 기반하여, 문화적 사안에 관련된 소련 고문단들은 토착적인 민속무용, 문학, 음악 등에 대한 연구를 장려했다...민족 문화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인민위원회에게 큰 선전 배당금을 계속하여 지불해 줄 것이다.⁸⁵⁾

다시 말해서, 이 분석에 따르면 북한 문화는 소련의 지배라는 사실을 단지 위장하는 '형식상의 민족주의, 내용상의 사회주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에 이어진 북한의 발전은 북한에서의 민족주의와 소련식의 사회주의간 관계가 1940년대 후반에서조차 그 반대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1945년과 1950년 사이에 보여지는 민족주의적 표현의 발전은 전쟁 이후의 북한이 소련으로부터의 자율성과 고유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후반 무렵, 이러한 고유성은 주체사회주의라는 형태 또는 북한이 말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모습을 띠어갔다. 이것은 동부유럽의 공산주의국가들이 붕괴한 후 아시아에 진정한 의미의 소련 위성국이었던 몽고인민공화국이 그 정당성의 기반을 잃어버린 뒤에도 북한

84) John N. Washburn, "Russia Looks at Northern Korea", *Pacific Affairs*, vol.20, no.2 (February, 1947), p.158.

85) RG 332, box 57, "North Korea Today", p.19.

이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여했다. 그 외의 단점들이 무엇이든 간에, 북한에서의 문화형성은 주목할 만한 생존의 능력을 보여 왔던 것이다.

참고문헌

1차자료

- United States National Archive, Record Group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1941-, Records Seized by U. S Military Forces in Korea".
- Shipping Advice 2005, box 1, item 18, 『조쏘문화』 (각호, 1946~1948).
- Shipping Advice 2005, box 2, item 91, 백남운, 『쏘련인상』 (평양: 조선력사 편찬위원회, 1950).
- Shipping Advice 2006, box 12, item 1, 교육성 보통교육국, 『월별사업계획서 및 보고철』 (pi[secret], 1950).
- Shipping Advice 2006, box 15, item 23, 『선전자』 (창간호, 1949. 10).
- Shipping Advice 2008, box 8, item 67, 『노동자문예집』 (군중문화청소7) (평양: 북조선직업청동맹 군중문화부, 1949).
- Shipping Advice 2008, box 9, item 9, 『영화예술』 제2호 (「내고향」 특집호, 1949), 영화예술 제3호(1949).
- Shipping Advice 2008, box 9, item 84, 김우철, 『나의 조국』 (평양: 문화조선사, 1947).
- Shipping Advice 2008, box 10, item 124, 『문화전선』 (창간호, 1946. 7).
- Shipping Advice 2009, box 3, item 84, 태성수, 민주주의 도덕 교양의 제문

- 제 (평양: 인민교육사, 1949).
- Shipping Advice 2009, box 7, item 25,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활동보고”(1947. 11. 3).
- Shipping Advice 2010, box 3, item 5, 『군중문화 사업 참고자료』 (민족문화보위성, 문화훈련국, 1950. 3).
- Shipping Advice 2011, box 7, item 31,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부 교원이력서』(1946).
- Shipping Advice 2012, box 8, item 67, 교육성 간부부, 『학교인사관계』 ([secret], 1946).
- Shipping Advice 2013, box 1, item 89, 북조선 교원문화 일꾼 직업동맹 중앙위원회, 『조직문화사업지도 요강』 (1949. 7).
- Shipping Advice 2013, box 2, item 7, 인민교육 no.2(1950)
- Shipping Advice 2013, box 2, item 271.12, 『선전자 수책』 (1949. 2).
- United States Army, Far East Command, 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rvice(ATIS), box 10, item 68, North Korean Democratic Youth League, “Decisions of Central Standing Committee”, (January-March, 1949).
-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Assistant Chief of Staff, G-2 Record Group(RG) 332, box 57, “North Korea Today” (1947).
- ATIS, box 10, item 68, 북한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회의 결정” (1949. 1-3).

2차자료

- 권용민 편, 『월북 문인 연구』 (서울: 문학사상사, 1989).
- 김성환, 『해방 공간의 현실주의 문학 연구』 (서울: 일지사, 1991).
- 김재용, “북한의 남로당계 작가 숙청”, 『역사비평』, 제27호(1994).

- 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4).
- 「내고향」 (film, 1948).
- 유재천, “사회-문화-도구화의 문제점”, 이상우 외, 『북한 4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성과 변천과정』, (서울: 을유문화사, 1988).
- 이기봉, 『북의 문학과 예술인』 (서울: 사사연, 1986).
- 임진영, “해방 직후 민주건설기의 북한문학”, 김남식 외 저, 『해방전후사의 인식』, 5권: 북한편 (서울: 한길사, 1989).
- 현수, 『적치 6년하의 북한 문단』 (서울, 1952).
- Bahro, Rudolf, *The Alternative in Eastern Europe* (London: Verso, 1981).
- Brus, Wlodzimierz, “Stalinism and the ‘People’s Democracies’”, Robert C. Tucker, ed., *Stalinism: Essays in Historical Interpretation* (New York: Norton, 1977)
- Cummings, 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ume two: The Roaring of the Catarac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Debord, Guy, *Society of the Spectacle* (Detroit: Black and Red, 1977).
- Deuchler, Martina,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A Study of Society and Ideolog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 Deutscher, Isaac, “Marxism and Primitive Magic”, in Tariq Ali, ed., *The Stalinist Legacy* (New York: Penguin, 1984).
- Fueloep-Miller, Rene, *The Mind and Face of Bolshevism: An Examination of Cultural Life in Soviet Russia* (New York: Harper & Row, 1965[1926]).
- Hoberman, J., *The Red Atlantis: Communist Culture in the Absence of Communism*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98).
- Kim, Il Sung, “Some Tasks Before Writers and Artists at the Present Time”, *Works*, vol.5(Pyongyang: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80).

- _____, "Talk With Writers and Artists, June 31, 1951", *Selected Works*, vol.1(Pyongyang: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71).
- Kim, Kyung Hyun, "The Fractured Cinema of North Korea: The Discourse of the Nation in *Sea of Blood*", in Xiaobing Tang and Stephen Snyder, eds., *In Pursuit of Contemporary East Asian Culture* (Boulder: Westview Press, 1996).
- Kolakowski, Leszek, "Communism as a Cultural Formation", *Survey*, vol.29, no.2(Summer, 1985).
- Kotkin, Stephen, *Magnetic Mountain: Stalinism as a Civiliz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 Kwon, Yong-min, "Literature and Art in North Korea: Theory and Policy", *Korea Journal*, vol.31, no.6(Summer, 1991).
- Lane, David, *The Rise and Fall of State Socialism* (Cambridge, U. K.: Polity Press, 1996).
- Lim, Un, *The Founding of a Dynasty in North Korea* (Tokyo: Jiyu-sha, 1982).
- Myers, Brian, *Han Sorya and North Korean Literature: The Failure of Socialist Realism in the DPRK*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 _____, "Mother Russia: Soviet Characters in North Korean Fiction", *Korean Studies*, no.16(1992).
- Naimark, Norman M., *The Russians in Germany: A History of the Soviet Zone of Occupation, 1945 ~1949*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 Pihl, Marshall, "Contemporary Literature in a Divided Land", in Donald N. Clark, ed., *Korea Briefing, 1993* (Boulder: Westview Press, 1993).
- Rankov, Andrei, 『소련의 원자료로 본 북한 현대 정치사』, 김광린 역 (서울:

- 오름, 1995).
- Schopflin, George, "The Stalinist Experience in Eastern Europe", *Survey*, vol.30, no.3(October, 1988).
- Schramm, Wilbur and John W. Riley, Jr., "Communication in the Sovietized State, as Demonstrated in Kore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16, no.6(December, 1951)..
- Smith, Geoffrey Nowell, ed., *The Oxford History of World Cinem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Taylor, Richard, *Film Propaganda: Soviet Russia and Nazi Germany* (London: I. B. Tauris, 1998).
- The Reds Take a City* (Rutgers University Press, 1951).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North Korea: A Case Study in the Techniques of Takeover*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1951]).
- Van Ree, Eric, *Socialism in One Zone: Stalin's Policy in Korea* (Oxford: Berg, 1989).
- Verdery, Katherine, *National Ideology Under Socialism: Identity and Cultural Politics in Ceausescu's Roman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 Wada, Haruki, *Kin Nichisei to Manshu konichi senso* (Tokyo: Heibonsha, 1992).
- Washburn, John N., "Russia Looks at Northern Korea", *Pacific Affairs*, vol.20, no.2(February, 1947).
- Yang, Key P. and Chong-boh Chee, "North Korean Education System: 1945 to Present", *China Quarterly*, no.14(1963).

〈Abstract〉

North Korean Cultural Formation, 1945~1950

Charles K. Armstrong (Columbia University, History)

North Korea, like other Marxist-Leninist regimes, was more than a political system. It represented an attempt to create a total system that integrated politics, economy, society, language, culture, and everyday life, based on the Soviet Union as the model of a 'new civilization'. This article examines some of the ways in which politics and culture were fused together in the formative yea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cusing on the education system, literature, and cinema. North Korean cultural formation relied on the example and input of the Soviet Union, but at the same time emphasized a revitalized and 'modernized' Korean national culture that would be both distinctly Korean and socialist.

Key Words: North Korea, Cultural Formation, Modernization.